

조인규[趙仁規]

유능한 통역관? 어엿한 외교관!

1237년(고종 24) ~ 1308년(충선왕 10)



1 개요

조인규(趙仁規, 1237~1308)는 13세기 전반~14세기 초 고려에 살았던 관리였다. 당시는 몽골이 유라시아를 제패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던 시기였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통 ‘원간섭기’라고 부르는 시기의 초기에 해당한다. 조인규는 새롭게 중요한 언어로 떠오른 몽골어를 익혀 외교에 투입되었고, 이를 통해 입신양명했던 인물이었다.

2 젊은 무관, 새로운 언어를 익히다

조인규는 1237년(고종 24)에 태어났다. 자는 거진(去塵)이고 평양부(平壤府) 상원군(祥原郡)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이라는 장교직에 올랐던 조영(趙瑩)이며, 외할아버지는 내원승(內園丞) 이유분(李有芬)이었다. 즉 조인규는 하급관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의 묘지명에 따르면 “학문에 뜻을 둘 나이가 되자 공을 세워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큰 뜻을 세워, 문자(文字)를 가볍게 여겨 그것을 버리고 태자부시위(太子府侍衛)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관련사료](#) 이렇게 무관의 길에 접어든 조인규는 1258년(고종 45)에는 장교인 대정(隊正)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 무렵, 그의 인생이 변하는 계

기가 생겼다. 조정에서 무반(武班)의 자제 중에 몽골어를 배울 사람을 선발하였고, 조인규가 여기에 선발이 되었던 것이다.

이 시점은 고려가 몽골에 대한 긴 항쟁을 끝내고 강화를 맺을 무렵이었다. 고려가 몽골과 접촉을 시작한 이래로, 조정에서는 몽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조정에서는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몽골어를 쓸 수 있는 관리를 양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조인규는 처음에는 동료들보다 뒤떨어졌으나 3년 동안 두 문불출하며 공부하여 몽골어에 능통해졌다고 한다. 관련사료 그의 나이 20대 초반의 일이었다. 그리고 1269년(원종 10)에 원종(元宗)의 아들인 세자 왕심(王諱)이 원으로 들어갈 때 수행을 하였다. 훗날 충렬왕(忠烈王)이 될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3 유능한 외교관, 충렬왕의 날개가 되다

묘지명에 따르면 조인규는 이후 4년 동안 세자를 보좌하는 데에 많은 공로가 있었다고 한다. 1274년(원종 15)에 왕심은 몽골 쿠빌라이칸의 딸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 혼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려에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조인규는 이때의 공으로 중랑장(中郎將)으로 승진하고, 곧 다시 장군 지합문사겸어사중승(將軍 知閤門事兼御史中丞)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인규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었다. 그 바탕은 그의 몽골어 실력이었다. 당시 몽골의 칸이었던 쿠빌라이도 조인규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몽골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조인규의 업적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1274년(충렬왕 즉위)에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으로 온 흑적(黑的)과 고려 조정의 갈등을 해결한 일이었다. 흑적은 원종대부터 고려에 오가던 인물이었는데,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는 그에 대해 “성품이 간사하여 신뢰하기 어려웠으며, 달로화적이 되면서 매우 거만해졌다.”라고 하였다. 관련사료 이 때 흑적은 원에 들어가 고려 조정에 대해 각종 악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75년(충렬왕 원년)에는 태자·성지(聖旨) 등 고려에서 사용하던 황제국 제도나 왕실의 동성훈과 같은 문제를 원에 고발하는 등 고려의 습속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다. 관련사료 묘지명과 『고려사』에서는 당시 조인규가 홀로 황제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여 이를 해결하였다고 하였다. 관련사료

물론 이는 문자 그대로 조인규가 홀로 한 일이라기보다는, 고려 왕실과 조정에서 조인규를 파견하여 거둔 성과였다고 해야 합리적인 이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그가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다. 이 일도 그렇지만, 사실 이 시기 조인규의 활약을 보면 그를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라 ‘외교관’이라고 보아야 적절할 듯하다. 동행한 다른 사신의 말을 통역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원의 황제나 조정 관리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활동을 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충렬왕은 원에 청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조인규를 파견하여, 30여 회나 사신으로 보냈다고 한다. 충렬왕은 원 중서성(中書省)에 편지를 보내 “배신(陪臣) 조인규는 몽골어와 한어(漢語)를 통달하여, 조정의 조서(詔書)와 칙서(勅書) 등의 글을 번역하는 데 <조금의> 오류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조정(天庭)에서 시위할 때, 시종 나를 따라다녔고, 또 공주를 섬기는 일에도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히 힘썼습니다.”라고 하며 그에게 관직을 내려주도록 청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인규가 교섭에 참여하였던 일을 여기에서 일일이 자세하게 열거하기는 어렵다. 또 자료들 자체도 구체적인 교섭상은 거의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료에서 조인규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위의 사안 외에도 먼저 원에서 파견했던 달로화적과 종전군(種田軍)을 돌려보내게 한 일, 원의 직할지가 되어 있었던 동녕부(東寧府)와 탐라(耽羅)의 고려 귀환을 요청한 일, 충렬왕에게 추충선력정원공신(推忠宣力定遠功臣)의 호를 내리게 한 일, 첨의부(僉議府)의 위상을 높인 일 등이 있다. 묘지명에서는 이를 두고 “〈조인규가〉 움직이면 〈나라를〉 구하는 효험을 거두었다.”라고 극찬하였다. 관련사료 고인을 기리는 묘지명의 성격상 다소의 과장은 있겠으나, 다른 사료에 있는 기록과 비교해 보아도 조인규가 상당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충렬왕은 그러한 조인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그와 함께 조인규의 지위도 하늘 높이 솟구쳤다. 재상의 지위에 올랐음은 물론, 실질적인 권력 면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4 왕비의 아버지, 그 영광과 참극

1292년(충렬왕 18) 여름 충렬왕은 조인규의 딸을 세자인 아들 왕장(王璋)의 부인으로 들였다. 훗날 충선왕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1298년(충렬왕 24) 1월에 충렬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선양하였다. 이 사건은 대개 원과의 관계에서 입지가 좁아진 충렬왕이 압력을 받아 부득이하게 물려준 것이라고 분석된다. 어쨌든 이제 조인규는 왕의 장인이 되었다. 하급 관리 집안에서 태어나 국왕의 장인까지 오른 조인규는 벼슬도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사도 시중 참지광정원사(司徒 侍中 參知光政院事)라는 높은 자리를 받았다. 조인규의 딸은 역사서에 조비(趙妃)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조비는 충선왕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적혀 있다.

젊고 유능한 국왕을 사위로 두고 왕비인 딸이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조인규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보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 ‘조비 무고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관련사료 그리고 몽골에 의한 충선왕의 폐위와 충렬왕의 복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져버렸다. 충선왕의 또 다른 부인인 몽골의 공주,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가 그 파란의 주역이었다.

계국대장공주는 1296년(충렬왕 22)에 세자였던 충선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당시는 원의 힘이 강력했던 시대였다. 결혼한 순서가 두 번째였더라도, 현실에서의 서열은 첫 번째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애정이 결부된 상황이 아니었다. 충선왕이 조비만을 총애하는 상황을 본 계국대장공주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 5월, ‘조비가 저를 저주하여 왕이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 원의 태후에게 보낸 것이다. 관련사료 주변 측근들의 꼬드김이 공주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을 눈치 챈 충선왕과 고려 조정에서는 사력을 다해 막으려 했으나, 공주는 단호했다. 더구나 이 시점에 궁궐의 문에는 익명서가 붙었다. 그 내용은 “조인규의 처가 신무(神巫)를 섬겨 저주하니 왕으로 하여금 공주를 미워하고 자기 딸만을 사랑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결국 원에서는 사자를 파견하여 조인규와 그의 처를 심하게 국문하고, 조비를 원으로 잡아갔다. 이 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100여 인이나 되었다고 한다. 조인규의 다른 자식들도 크게 고초를 겪었다. 재산도 모두 빼앗겼다. 그리고 조사 끝에 1299년(충렬왕 25) 4월에 조인규는 곤장을 맞고 원의 안서(安西)로

귀양보내졌다. 충선왕도 폐위가 되어 원으로 소환되었다. 조인규가 일생 동안 노력하여 일군 성취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물론, 그 자신과 가족들마저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충선왕의 개혁 추진과 이에 대한 반발 등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깔려 있었다.

5 마지막 가르침, 가족의 소중함

조인규는 1305년(충렬왕 31) 5월에 겨우 방면되어 판도첨의사(判都僉議事)에 임명되었다. 그의 나이 이미 69세였다. 2년 뒤에는 평양군(平壤君)으로 책봉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고령이 된 조인규는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결국 1308년(충렬왕 24) 4월,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위인 충선왕은 절치부심 끝에 원에서 무종(武宗)을 옹립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워 정치적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었으나, 조인규는 충선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병석에 누운 조인규는 간병하고 있던 아들 조연(趙璉)에게 가법(家法)을 남겼다. 묘지명에서는 “여러 겹의 인연으로 동복(同腹)으로 태어났으니, 집안일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 무릇 나라를 이롭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맏아들 서(瑞) 등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형은 삼가고 동생은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남겼다고 기록하였다.

관련사료 만년의 고초가 그에게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조인규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사위인 충선왕은 다시 고려의 왕위에 올랐다. 복위 교서에서 충선왕은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 15곳을 발표하며, 조인규의 가문인 평양 조씨를 그 중 하나로 넣었다. 세상을 떠난 장인에 대한 예우였을까. 이를 통해 위상을 회복한 조인규의 후손들은 다시 고려 조정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